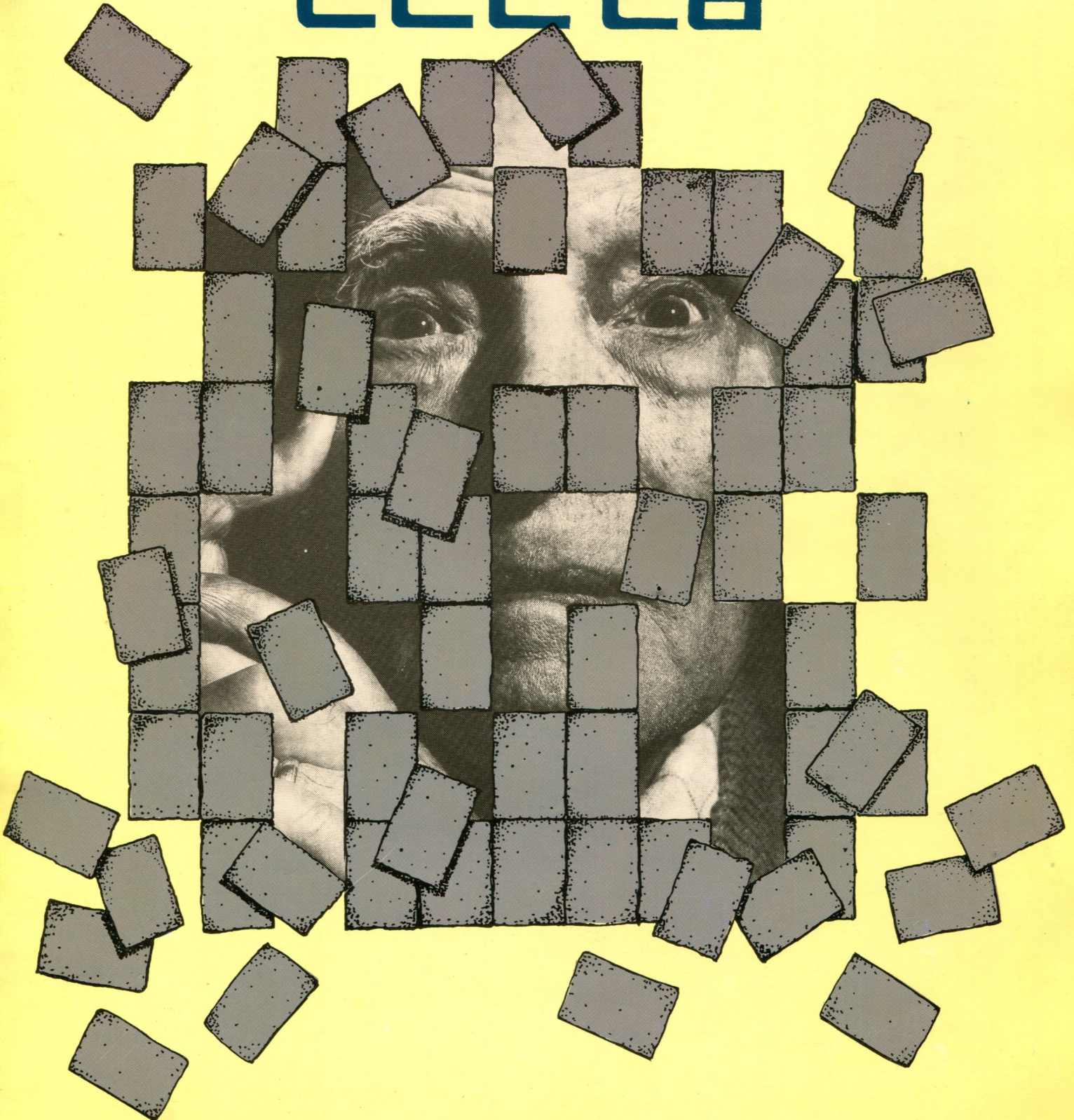


# 완전한 만남



## 간헐 자유인, 열린수인(囚人)



원작/김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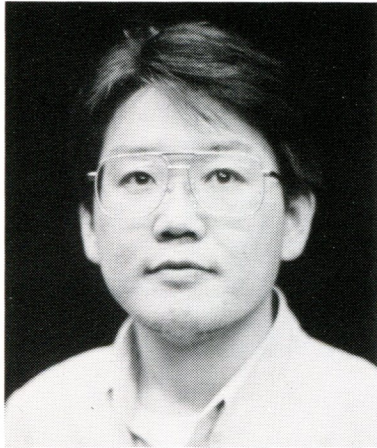
바쁘게 길을 걷다가 문득 난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멍하니 멈춰설 때가 있다. 순간 시간과 공간은 시커멓게 물러와 나를 포위해 감옥속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때 마주친 하늘은 교도소의 천정처럼 늘 무거운 회색빛이었다.

존재의 피구속성이 밝혀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미시의 세계처럼 시간의 방향이 없어지고 무의미한 진동만 반복하는 요즘, 일상성의 감옥에서 탈옥을 꿈꾸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난 장기수들을 특별하고 특수한 존재로 그리지 않았으며 더욱이 미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일상성의 감옥속에 갇힌 우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었다. 안팎이 없는 클라인씨 병(甁)처럼 감옥의 세계는 바깥으로 열려져 있으며 바깥의 일상성은 감옥안으로 들어가 있다. 갇힌 자들은 끊임없이 자유와 해방을 꿈꾸고 있는 반면, 바깥의 우리는 분단신화와 허위의식에 감금당하고 있다. 우리의 분단의식은 빨갱이라는 집단무의식에 사로잡혀 단군신화를 대체하는 국민신화로 발전했다. 반공이 국시가 되고 반복이 테올로기는 아프리오리(Apriori : 선형적)한 경험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의 형성은 미국산 코카콜라를 마신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때로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어느 층에도 전혀 없는 환각임을 깨닫고 놀랄 때가 있다.

이러한 환각과 허위의식이 영호남을 분리하고 남북을 갈라놓아 한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분열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장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장기수들의 삶은 분단신화의 직접적인 산물인 셈이다. 그들은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5대 정권의 흥망을 0.75평의 감옥에서 보았고 정권의 교체기마다 사면과 가석방의 기대는 커녕 오히려 인간 인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우리 의식의 가장 부끄러운 곳에서 오늘도 복역을 치르고 있다.

난 길을 가다가 문득 멈추어 일상성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 낮게 내려온 하늘과 무거운 의식의 너옥(牢獄)인 분단신화를 허물 때 비로소 남북의 민중을 감금하고 있는 분단의 장벽도 헐릴 것이다.



희곡, 연출/이 창복

분단은 숙제다.  
완성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이 숙제를 끝내면  
내 어린 딸, 새롭이는 아빠의 어린시절과는 달리  
유월의 미술시간에 늑대의 발톱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 숙제를 끝내면  
같은 민족의 130만 젊은이들이  
형제들끼리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내려도 된다.

이 숙제를 끝내면  
식민지에서 분단으로의 역사를 마감하고  
떴었던 민족의 기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숙제는 싸운 사람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듯  
서로의 고집만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이 숙제는 한 뿌리를 갖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기를 내민 나무와 같아서  
그 꼭대기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뿌리가 같음을 알 수 없다.\*

이 숙제는 풀 수 있다.  
자기 줄기의 꼭대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뭇잎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멀리 자기자신을 심고 있는  
땅속의 뿌리를 사랑하면.

그래서  
내 어린 딸 새롭이에게  
갈라져서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던  
줄기의 얘기를  
옛날 얘기로 해줄수 있는 날을  
맞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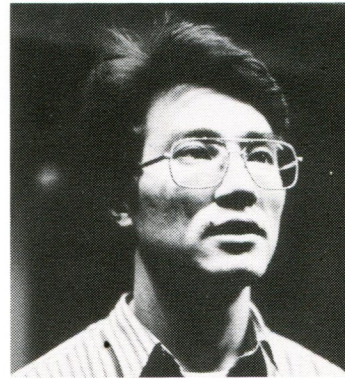
최한모  
박찬영



허성택  
이돈희



최한모, 유하민  
최웅



유하민  
심창신



김원기, 원삼실  
차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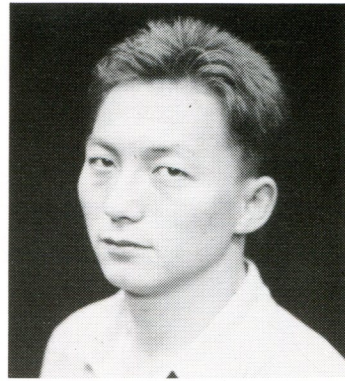


소장, 숙부  
신창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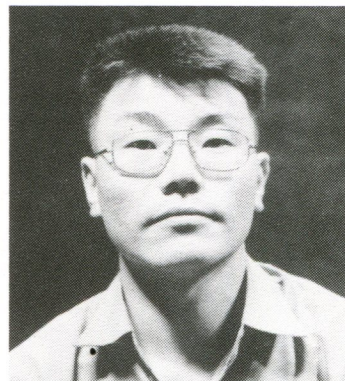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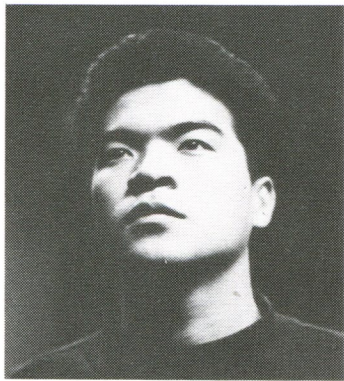
소장, 숙부  
최성우

소장,숙부  
김원기  
안 현



원삼실  
중위,교회사  
황성현

담당,박석찬  
강현중



허성택,원삼실  
조재현



기숙,숙모  
김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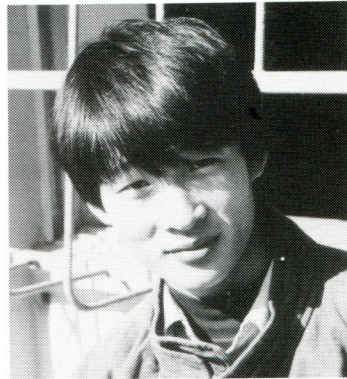
기숙,숙모  
배은지



숙모  
안성혜



작곡  
김민하



무대미술  
김원태



음향  
김옥성



의상  
박미정



조명  
천은경



소품  
윤선희



사진  
박정미